

# PGA 챔피언십 출격 임성재 “정확도 높은 티샷이 중요”

### 우즈 “몸 상태 최상에 퍼팅 여전히 자신있어”...우승 경쟁 나서

시즌 두 번째 메이저 골프대회 PGA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타이거 우즈(미국)가 건강한 몸으로 우승 경쟁에 나서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우즈는 대회 개막을 사흘 앞둔 15일(한국시간) PGA 챔피언십 개최지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발할라 골프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우즈는 “몸은 이상 없다. 경기력도 더 좋아졌다”면서 “여전히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린 주변에서나 퍼팅은 여전히 잘 할 수 있다”고 자신감도 보였다.

그는 지난 2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때는 독감으로 기권했고 지난 달 마스터스 때는 컷을 통과했지만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면서 경기력까지 흐트러진 끝에 최악의 스코어를 내고 꼴찌로 대회를 마쳤다.

한 달을 쉬고 나온 우즈는 “여전히 샷은 괜찮다”면서도 “다만 연습 때나 경기에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마스터스 때 이를 동안은 잘 했지만 3, 4라운드엔 잘하지 못했다”면서 “마스터스 1, 2라운드 때 경기력을 나흘 내내 유지해야 한다”고 4라운드를 버틸 체력과 집중력을 속세로 제시했다.

지난 13일 일찌감치 발할라 골프클럽에 나타난 우즈는 “대회에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1라운드 전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기에 여기

서 연습하고 식사도 골프장에서 한다. 그게 일찍이 곳에 온 이유”라면서 “그린을 살피고 모든 준비를 마친 뒤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즈는 또 마스터스를 포함한 올해 벌써 4승을 거둔 스코티 셰플러(미국)에 대해 “퍼팅이 형편없어도 톱10에 들고, 퍼팅이 잘 되면 우승하는 선수”라고 극찬했다

한편 임성재는 이번 대회 승부를 결정지을 요소로 티샷을 꼽았다.

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와 인터뷰에서 임성재는 “코스 길 편이라서 미들 아이언이나 롱아이언도 많이 쓰겠지만 그래도 티샷을 페어웨이에 떨어뜨리지 않으면 어려운 경기 예상되는 만큼 티샷의 정확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임성재는 “PGA 챔피언십은 코스 세팅이 어렵고 긴 편이었고 이번 대회에서도 티샷을 페어웨이에 떨어뜨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회에서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이 공동 17위였는데, 올해는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의욕을 보인 임성재는 “그러려면 페어웨이를 잘 지키면서 조금 더 정확도 높은 샷으로 경기하면 찬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거듭 티샷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습하는 /연합뉴스



타이거 우즈



임성재

## 조선이공대 정한진, 칭다오국제오픈태권도대회서 금빛 발차기

### 박세민 품새 종목 은메달 획득

조선이공대 스포츠재활학부 학생들이 칭다오에서 열린 국제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 세계 15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제10회 중국칭다오국제오픈태권도대회’는 최근 중국 칭다오에서 열렸다.

정한진(1년)은 ‘제10회 중국칭다오국제오픈태권도대회’ 대학부 54-58kg급 겨루기 결승에서 중국의 왕사봉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박세민(1년)은 대학부 품새 종목에 출전해 2위를 기록했다.

정한진은 “국제대회 경기를 통해 태권도 중추국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낌없이 지도



조선이공대 정한진(오른쪽)과 박세민이 ‘제10회 중국칭다오국제오픈태권도대회’에서 각각 대학부 겨루기 금메달과 품새 은메달을 획득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조선이공대 스포츠재활학부 제공>

해주신 교수님들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조선이공대는 대회기간 청도서해안태권

도협회를 방문해 태권도 우수인재 양성에 대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김진기 기자 jinggi@kwangju.co.kr

## AI페퍼스, 미들블로커 임주은 영입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자유신분 선수로 공시된 임주은을 영입했다.

페퍼스는 최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임주은의 페퍼스 합류를 공개했다. <사진>

제한여고를 졸업한 임주은은 2003년생으로, 2022-2023시즌 V-리그 여자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지명을 받아 1라운드 7순위로 프로에 입단했다.

데뷔 시즌 1경기 출전에 그친 임주은은 페퍼스 공식 유튜브 영상을 통해 “기회를 더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소연 페퍼스 감독은 “임주은의 이전 소속 구단에 워낙 출중한 미들블로커가 많아 출전 기회를 더 잡지 못했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프로 생활을 이어나가려는 본인의 의지 또한 강했다”고 영입 후일담을 밝혔다.

또 “아직 훈련 진행한 지 이틀밖에 안 돼서 엄청난 기량을 보여줄 만한 기간은 아니다”라며 “기본기 측면에서는 아직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성실한 선수가기에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말은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해 페퍼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4월 한다혜 영입에 대한 FA 보상선수로 서채원을 내줬던 페퍼스는 임주은의 합류로 백업



미들블로커 공백을 메우게 됐다.

한편, 페퍼스는 최근 아시아쿼터와 외국인선수 트리아아웃을 통해 장위·바르바라 자비치 등을 영입하며 오는 2024-2025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완도 생활체육대축전서 영·호남 어르신들 기량 선보인다



제19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이 16일 완도 청해진스포츠클럽 일원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왼쪽부터 지난해 열린 제18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개최식과 15일 진행된 경북생활체육교류 선수단 환영식. <전남도체육회 제공>



제19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이 16일 완도 청해진스포츠클럽 일원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왼쪽부터 지난해 열린 제18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개최식과 15일 진행된 경북생활체육교류 선수단 환영식. <전남도체육회 제공>

### 16~17일 개최...9개 종목 경쟁

영·호남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한마당인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이 완도에서 열린다.

‘제19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이 16-17일 완도 청해진스포츠클럽에서 개최된다.

전남 22개 시·군과 경북 생활체육교류단 2300

여 명은 게이트볼·그라운드골프·산악·공도·탁구 등 9개 종목에 참가해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경북 생활체육교류 선수단은 김점두 도체육회장을 필두로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등 6개 종목에 80명의 선수들이 함께해 영·호남 우호를 다지게 된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대축전을 통해

영·호남이 하나되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돼 기쁘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지역의 상생협력 일환으로 합의된 전남-경북 간 생활체육 우호 교류는 2014년 처음 시작돼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조선대, 전국역도경기대회서 금메달 번쩍

### 이서진·정하성 금

조선대 역도부가 ‘제2회 대한역도연맹회장배 전국역도경기대회’서 선전했다.

지난 14일 강원 양구에서 열린 이번 대회 대학·일반부 경기에서 81kg급 이서진(1년)은 인상 105kg, 용상 130kg에 이어 합계 235kg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61kg급 정하성(4년)도 인상과 용상에서 각각 90kg와 120kg로 1위에 오른 뒤 합계 210kg로 3

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67kg급 최인우(4년)는 인상 117kg(2위), 용상 130kg(2위)로 합계 247kg를 들어올리면서 배민호(신성대·264kg)에 이어 2위에 자리했다.

조선대 박후성 감독은 “열심히 하다면 실업팀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다”며 “앞으로도 잘 해서 스스로의 기록을 깨면서 더욱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진기 기자 jinggi@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5월)**  
 일시 : 2024-05-04(토) ~ 2024-05-26(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광주시립발레단 제137회 정기공연 「DIVINE」**  
 일시 : 2024-05-24(금) ~ 2024-05-25(토)  
 05.24.(금) 19:30  
 05.25.(토) 15:00, 19: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502 / 062-522-8716